

광주 학동 붕괴참사 수사 차질 빛나

구속된 '비밀누설' 경찰 해당분야 책임수사관 청연한방병원 사건 등 주요수사 영향 '불가피'

광주경찰청 주요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던 형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학동 붕괴사고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속된 A경위는 책임수사관으로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책임 수사관은 수사관 자격 중에서

급이 가장 높은 자격을 뜻하는데, 10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경찰관 중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베테랑' 격인 이들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게 되는데 광주경찰청 전체 인원 중 수사 분야 책임 수사관은 A경위를 비롯해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A경위는 청연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연수설을 확인하는 민감한 사건부터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주요 사건을 도맡았다.

그러나 A경위가 수사 상황을 동료 경찰관에게 유출하고, 범죄 혐의점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되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가 맡고 있던 사건을 조만간 다른 팀으로 분산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불가하다.

일부 사건의 경우 A경위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수사를 이어받게 될 수사관들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연한방병원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데다 동료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더욱 어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경위가 수사하던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당장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가족이 모인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선 "그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학동 참사의 진

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 수사팀이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이들은 "A경위가 과거 재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하면서 혐의자들을 무혐의로 풀어줬는데 이들이 학동 참사 재개발 사업에 그대로 참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재배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1~27	흑산도	22~26
담양	21~27	구례	21~27
화순	21~27	곡성	21~27
영광	21~26	완도	22~27
함평	21~26	강진	21~29
무안	21~26	장흥	21~27
영암	21~27	해남	20~27
진도	21~27	고흥	20~27
신안	22~27	보성	20~26

일출 06:25 일몰 18:20
월출 23:34 월몰 13:54

목포	만조 06:38 19:42	여수	만조 00:30 14:27
	간조 11:45 --:--		간조 07:09 20:55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광주 방문 기억 안나”

송진원 전 항공여단장 첫 재판 혐의 부인 5·18단체 법률대리인 “면피용 취지 진술”

전두환씨(90)의 형사재판에서 위중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90·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2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 당시에는 광주에 다녀간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시대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1978년 육군에 하나 밖에 없는 항공여단이 창설된 후 초대 여단장을 지냈다.

코로나, 500MD 등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31항공단과 UH1H 등 수송용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61항공단 부대원들은 전두교육사령부에 배속돼 광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 묻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부대원들이 전교사에 배속

돼 내가 지휘하지 못했고 61항공단장과 같이 현지에 가서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다”며 “이후 검찰에서 연일이와 ‘80 항공명사’를 찾아보고 뒤늦게 위문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부대로 복귀했다. 또한 1995년에도 5·18 당시 광주 무장헬기 파견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송씨를 고발한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송씨는 육군항공여단을 창설한 분이고 헬기조종사들의 상징적인 분”이라며 “5·18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다음 진술 전체를 부인하는 면피용 취지의 진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적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환준 기자



아동학대 예방 거리캠페인

28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일대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홍보 거리캠페인’에 참가한 동구 우리동네 아동 수호대 회원, 자원봉사센터 회원 등이 시민들에게 마스크, 안 내문 등을 나눠주며 홍보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광주교법 형사2-2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 남매 가족은 횡단보도 반대 차로에 차들이 멈추지 않고 주행하자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와 가까운 횡단보도 지점에 서 있었다. A씨가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참변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반대편 차들의 일시 정지 위반도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오늘 흐리고 비...최대 50mm

광주·전남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9일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낮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10~50mm다.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최고기온은 24~28도가 되겠다.

당분간 전남해안과 도서지역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빈 기자

‘아기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부부 검거

생후 4개월 된 아기까지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지난해 8월 31일과 10월 10일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1,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7월 26일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혼자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에 알렸는데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알려져 달미가 잡혔다. /오선우 기자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주)금호주택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임대문의 062) 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전국사업지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